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을 따라

연중 제26주일,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2021. 09. 26. (나해) 제2287호

대구주보



주님의 집 동춘성당
비운뒤
더운 여름날에
2021. 7

+ b e r n a r d

동춘성당 | 그림 _ 서원만 베르나르도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제1독서 민수 11,25-29 **화답송** ◎ 주님의 규정 올리바니 마음을 기쁘게 하네. **제2독서** 야고 5,1-6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 당신 말씀은 진리이시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소서. ◎ 알렐
루야. **복음** 마르 9,38-43,45,47-48 **영성체송** 주님,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저는 그 말
씀에 희망을 두었나이다. 당신 말씀 고통 속에서도 위로가 되나이다.

죄에 대한 단호한 태도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 전재현 베네딕토 신부

“네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그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마르 9,43)

진짜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9월, 순교자 성월과 관련하여 오늘 복음의 이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산모의 고통과 피가 세상에 뿌려짐으로써,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의 산고와도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도 누군가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서 피어났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과 로마에서는 첫 순교자 스테파노 부제를 시작으로, 베드로와 바오로 등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로 교회가 꽃 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을 비롯한 1만 명이 넘는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말 그대로 교회의 씨앗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죄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취하라는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며, 박해시대 때에 순교자도 많았지만 배교자도 많았음을 기억해 봅니다. 초대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 안에서도 그 배교자들을 보면, 단순히 믿음을 잃어서 배교하는 경우보다는 고문과 죽음이 두려워서 배교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 사람들 사이의 ‘인정’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서 배교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눈물로 호소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렸다고보다는,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흔들렸다는 얘기입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쉽지 않지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순교자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머리가 잘리고, 손발이 찢겨야 했지만,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죄와 맞서는 오늘날 우리의 모든 행위가 작은 순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의 우리 삶 안에서도 충분히 순교할 수 있고, 그 순교로 나 자신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궂**



더욱더 넓은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올해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담화의 주제를 더욱더 넓은 ‘우리’를 향하여 라고 정하여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여정을 위한 분명한 지평을 보여 주고자 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서로 다르지만 상호 보완하도록 창조하시며, 세세대대로 더욱더 번성하도록 정해진 ‘우리’를 만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당신의 모습,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당신 모습, 다양성 안에서 친교를 이루는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온 인류 가족, 곧 만 백성을 받아들일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구원 역사에는 그 시작에도 ‘우리’가 있고 그 마침에도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어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요한 17,21) 해 주신 그리스도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하느님께서 바라셨던 이 ‘우리’는 무너지고 산산조각 나고 상처 입고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이는 현재의 세계적 유행병 상황처럼 큰 위기가 닥치는 순간에 한층 더 분명해집니다. 너무 당연하게 다른 이들로 치부되는 이들, 곧 외국인들, 이주민들, 소외된 이들, 실존적 변방에서 사는 이들이 가장 큰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바로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고 함께 일 하라고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우리를 갈라놓는 장벽이 없어질 것이고, 더 이상 다른 이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품어 안는 단 하나의 ‘우리’가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모든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다양성 안에서 친교를 이루며, 물개성적인 획일화를 강요 하지 않고 다름들이 화합을 이루게 해 주십니다. 다양한 외국인들, 이주민들, 난민들과의 만남 그리고 이러한 만남으로 생겨날 수 있는 문화 간 대화를 통하여 우리는 교회로서 성장하고 서로를 풍요롭게 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세례 받은 모든 이는, 어디에 있더라도 마땅히 지역 교회 공동체 그리고 하나인 교회를 이루는 지체이고, 한 지붕 아래 사는 식구이며, 한 가정의 일원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편견이나 두려움을 갖지 않고 개종시키려 하지 않으면서, 모든 실존적 변방의 거리로 나가 상처를 치유해 주고 방황하는 이들을 찾아 나서며, 모든 이를 감싸 안기 위하여 교회의 그늘막을 넓힐 준비를 하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한 실존적 변방에 사는 이들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이주민들과 난민들, 실향민들, 인신매매의 피해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이 드러나고 당신의 구원이 선포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는 다양성과 문화 교류로 풍성해져 ‘다채로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화합과 평화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더욱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잡힌 포괄적 발전을 향하여 나아가면서도, 끊임없이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를 돌보는 개인적 집단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곧 내국인과 외국인, 주민과 외지인을 구별하지 않으려는 노력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한 인류 가족으로서, 같은 여정의 길동무로서, 우리 공동의 집인 이 땅의 자녀로서, 모든 이가 형제자매로서 함께 꿈꾸라고 부름받습니다(『모든 형제들』, 8항 참조).

프란치스코

(※ 전문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황금률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라.” (마태 7,12)

성바울로본당 | 최상원 토마스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라.”(마태 7,12)는 내 생활에 황금률인 성경 말씀입니다. 이 황금률을 실천하며 성실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 기도할 때 묵상하며 성모님께 보살핌을 간구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를 반성하며 말씀에 따라 생활한 것들을 돌이켜 봅니다. 말씀을 실천하며 보낸 날은 쉽게 잠자리에 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날은 소홀한 모든 것에 대해 곱씹는 후회의 시간이 길어지기도 합니다.


마음에 새긴 것을 잊지 않고 실천하기 위해 나를 소개하는 명함 뒷면에 이 황금률을 인쇄하여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명함은 나를 소개하는 첫 번째 행위로 첫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인사를 나누고 황금률이 적힌 명함을 건네면 상대방의 표정에 놀람과 호기심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가톨릭 신자인 것에 놀라고 둘째는 황금률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사회생활에서 첫 만남, 첫 인사가 첫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첫인상이 좋았던 경우, 다시 만났을 때 황금률 말씀으로 잊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황금률이 적힌 명함은 가톨릭 신자로서 규범을 실천한다는 암묵적 메시지가 되고 또한 성경 말씀은 신앙적 표현으로 선교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세 마디의 말씀, “때가 아니다.”, “잘 들어라.”, “두려워하지 마라.”를 일상생활의 근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마디만 실천해도 사람의 도리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성숙되지 않는데 억지로 하는 일은 실패가 따르기 쉽고, 남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내뱉는 말은 논쟁의 중심에서 벗어나 의사전달에 장애를 일으키고, 환난을 만났을 때 심한 두려움이 정상적인 판단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동양의 고전 <논어>에도 성경의 황금률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己所不欲, 勿施於人.”(기소불욕 물시어인)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 시키지 마라.”

평소 쉽고 익숙한 것은 내가 하고 불편하고 힘든 것은 남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반성합니다. 또한 황금률로 일상에 변화를 일으켜 참된 생활을 이끌어 주신 주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느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마태 22,39)는 말씀을 실천하며, 남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가톨릭 신자답게!! 

한국 순교복자 124위 약전

‘유희’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던 이순이(李順伊) 루갈다는 1782년 한양의 유명한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였다. 1801년에 순교한 이경도 가롤로와 1827년에 순교한 이경언 바오로는 그녀와 남매간이고, 1801년에 순교한 유중철 요한은 그녀의 남편이다. 루갈다의 부친 이윤하 마태오는 당대의 학자 이익의 외손으로, 그의 학문을 이어오고 있었다. 또 처남인 권철신 암브로시오와 권일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이승훈 베드로 등과 어울리다가 1784년 한국 천주교회가 창설된 직후에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였다.

1793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루갈다는 어머니와 함께 열심히 교리를 실천해 나가면서 오로지 영혼을 구하는 일에만 몰두하였다. 그리고 1795년에는 주문모 야고보 신부로부터 첫 영성체를 하였다. 이때부터 루갈다는 오로지 성체를 보존하고 덕행을 쌓는 데만 마음을 쏟았다. 그리고 천상배필을 위해 동정을 지키기로 굳게 결심하였다.

15세가 되던 1797년 어느 날, 루갈다는 어머니에게 동정을 지키기로 결심해 왔다는 사실을 고백하였다. 그녀의 어머니는 주 신부와 이 문제에 대해 의논한 끝에 동정 생활을 하기로 결심한 전주 유중철과 혼인을 주선하였다.

다음 해 9월, 루갈다는 남편의 고향 전주 초남(현 전북 완주군 이서면 남계리)으로 가서 남편과 함께 시부모님 앞에서 동정 서약을 하고 오누이처럼 일생을 살겠다고 다짐하였다. 그리고 이후로는 남편 요한이 동정 서약을 어기려고 할 때마다 기도와 묵상으로 이를 극복하도록 도와주었다.

1801년 신유박해가 발생한 지 얼마 안되어 루갈다가 살던 초남에도 포졸들이 들어닥쳤다. 이때 그들은 루갈다의 시아버지 유헩검 아우구스티노를 가장 먼저 체포하여 한양으로 압송하였고, 이어 그녀의 남편 유중철도 체포하여 전주로 끌고 갔다.

이순이 루갈다는 그해 9월 중순경에 나머지 가족들과 함께 체포되었다. 루갈다는 유배형을 받고 함경도로 떠나게 되었다. 루갈다가 친척들과 함께 유배지로 떠난 지 얼마 안되어 전주에서 파견된 포졸들이 쫓아와 그들을 다시 체포하였다. 그러자 그녀는 ‘이제 순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다.

사형 신고를 받은 다음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된 루갈다는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았으며, 4~5일 뒤에는 형벌로 인한 상처가 말끔하게 나았다고 한다.

마침내 루갈다의 사형 판결에 대한 임금의 윤허가 내려졌고 1802년 1월 31일(음력 1801년 12월 28일) 친척들과 함께 ‘숲정’이라고 불리는 전주 형장으로 끌려나가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으니, 이때 그녀의 나이는 20세였다.

출처 :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홈페이지



이순이 루갈다
(1782 ~ 1802년)

창작성가 공모 2021. 9.30. 기한

총 상금 2,000만 원 / 대구대교구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주제곡

공모부문: 교회 전통음악 / 가톨릭 생활성가 참가자격: 가톨릭 신자라면 누구나

시상내역: 대상(1명) 500만 원 / 최우수상(2명) 300만 원 / 우수상(2명) 200만 원 / 장려상(5명) 100만 원

문의: 교구 문화홍보국, 250-3046~9 또는 이메일(pr@dgca.or.kr)

※ 자세한 사항은 천주교 대구대교구 홈페이지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주제곡 창작성가 공모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6. 예수님 바라보기 : 가정의 소명 ⑥

인간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면서도 성사로 거룩해지는 성적 결합은 부부가 은총의 삶으로 성장하는 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혼인의 신비”입니다. 부부는 약속, 창의, 인내, 일상의 노력으로 하느님 선물에 응답하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교회의 라틴 전통에 따르면 혼인성사의 집전자는 혼인을 하는 남자와 여자입니다. 부부는 상호 합의를 표명하고 이를 육체적 상호 증여로 나타내며 커다란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합의와 육체적 결합은 부부가 한 몸이 되게 하시는 하느님의 활동의 도구가 됩니다. 세례 받은 이들은 주님의 봉사자로서 혼인으로 결합하여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든 혼인 예식에서 하느님의 활동에 대하여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의 기쁨』, 74-75항)



함께 가자, 생명의 길로! - 말씀과 함께하는 생태발자국 줄이기

계단 이용하기 (지하철, 2, 3층 건물)

교구 평신도위원회 & 생태환경위원회 제공

말씀의 해 안내지 37호 정답

1. 흠, 경외, 악, 부자 2. 알몸, 알몸, 주셨다가, 가져가시니, 좋은, 나쁜 3. 인과응보(因果應報)
4. (살아 계신 구원자) 하느님

우리 베드로는 못말려

박성규 엘리지도



미사 안내

2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9월 27일(월) 10:30 범어성당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9월 28일(화) 19:30 다사성당
1대리구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9월 27일(월) 11:00 계산성당		9월 29일(수) 10:00 죽도성당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9월 27일(월) 11:00 봉곡성당		9월 29일(수) 14:00 성토마스성당
구미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9월 27일(월) 11:00 도량성당	3대리구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0월 2일(토) 10:00 월성성당

성소 | 피정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일시: 10.3(일) 9:30
 장소: 서울 돈암동본부
 대상: (만)19세~35세
 문의: korvocation@columban.or.kr

한국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대상: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문의: 성소국장,
 (010)8715-2846

효령하늘집 피정

개인, 단체: 언제나
 산내 치유 피정: 9.28(화)~29(수)
 치유기도: 매주 수 14:00~16:00
 문의: (054)382-0091

교육 | 모집 | 기타

CLC '예수님께 인생을 물다' 영성 강좌

일시: 10.13~11.17 매주 수 19:00
 장소: 교구청 별관 1층 대화합실
 주제: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르게,
 사랑의 힘, 사랑의 질서와 영적 훈련
 수강료: 8만원 / 문의: 283-9898

SPC에니어그램 1단계 교육 개강

일시: 10.26(화) 19:00~21:00
 교육기간: 주 1회 총 8주 16시간
 장소: 샬트르성바오로수녀원
 내용: 에니어그램을 활용한 내적여정
 신청: 254-2664 / (010)3228-3330

재속프란치스코회 지원자 모집

대상: 만 53세 이하의 가톨릭 신자

마감: 10.2(토)

문의: (010)3440-0304

제31회 한국 가톨릭 매스컴대상 공모

부문: 신문·출판 / 영화·TV /
 라디오·인터넷 / 교구·수도회
 대상: 2020.11.1~2021.10.15 발표 작품
 마감: 10.15(금)

www.cbck.or.kr 참조

문의: 사회홍보위원회, (02)460-7626

ENTS(영어성경) on ZOOM(ents.or.kr)

일시: 9.28~11.30(매주 화) 19:00
 주제: 복음서 속 여성들과의 만남
 강사: 안 페트릭 신부
 수강료: 3만원
 문의: 성골롬반외방선교회, (02)953-0613

가톨릭여성교육관 설립40주년 기념 - 미혼모 돕기 전시회

가톨릭여성교육관 1981-2021

• **홍창익 비오 신부 초청 사진展** •

일시: 10.2(토) ~ 10.15(금)

장소: 갤러리1981 (교구청 내 교육원 다동 1층)

코리아알트만
 38년 전통 결혼정보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티리아)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254 (2층)
 T. 053-743-4488
 M. 010-3530-7467

남청·이명은

밝은귀보청기 & 청각재활센터

대학병원급 최신 검사 및 피팅 장비 보유

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 석사/청능사
 최준우 (미카엘)

봉덕점 · 서문시장점 010-6481-8848

암·면역 전인병원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입구 1688-7657

포장이사, 일반이사, 사무실이사, 보관이사

유림익스프레스

허만철(바오로) 하중순(요안나)

H.P 010-7659-8777
 053)783-2456, 653-2456

가톨릭피부과의원
 Catholic Dermatology Clinic

58년 역사와 전통의 피부질환 전문병원
 | 신축건물 이진 및 레이저 전문 진료과장 초빙 |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15길 28
 대표전화 053) 320-2000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재)대구구천추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김명섭(그레고리오) 신부
 TEL 053)615-4871

신앙과 함께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대구정신병원

원장 서준영(요한) 신부

T. (053)630-3000~1

진료분야 : 조현병, 우울증, 알코올 중독 및 기타 정신질환

가람소방방재(주)

- ◆ 소방시설점검 ◆ 소방안전관리대행
- ◆ 종합정밀점검 ◆ 소방관련기술교육
- ◆ 작동기능점검 ◆ 소방시설전문공사

대구시 달서구 달서대로 559 이연씨노비스타워 B108호
 대표전화 053)600-8485~9 HP 010-4245-0507
 대표이사 소방시설관리사 김진석(스테파노)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김동한(가롤로) 신부
1983년 9월 28일

행사 | 모임

효성여고 개교 70주년 기념행사

인성제: 10.5(화)
학술제: 10.6(수)
기념식: 10.7(목)
문의: 235-7004 / 235-6937
동문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바나의성모기도회 월례미사

일시: 9.30(목) 13:00 기도, 14:00 미사
장소: 대안성당
10월 성모심신피정 예정

교육 | 모임

대구가톨릭음악원 전공반 모집

모집: 지휘, 시편 성가, 성악, 오르간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대구가톨릭대학교 유스티노자유대학원

인문학석사학위 과정 신입생 모집
접수: 11.1~12 / 월, 목 야간 강의
대상: 학사학위 소지자(전공 무관)
혜택: 학생 전원 50% 장학금
문의: 660-5252~4 / (010)6563-0409

대구가톨릭대 한국어교육학과(석사) 모집

한국어교원2급·석사학위 취득

남산동캠퍼스(출석 주1회) 온라인70%
학사학위소지자(전공무관) 지원
신입생 전원 장학금25%
기간: 11.1~12 / 문의: 850-3183

남대영기념관 수지에니어그램

자기 이해와 잠재력 개발, 리더십 향상
가족수지, 커플수지, 소그룹 피정
일시: 10.9(토) 10:00~17:00
문의: 정이사야수녀, (010)8682-4237

바오로딸 영성프로그램

일시: 10.14(목 8주) 19:30~21:00
주제: 결혼생활에서 그리스도 발견하기
강사: 최성옥 신부(대구가톨릭대학 교수)
이콘제작체험: 10.10(일) 14:00~17:00
예약: 바오로딸, (010)6681-5185

대구가톨릭대병원 사회사업후원자 모집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환우들이 치유의 희망을 가지도록
나눔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후원: 대구은행 505-10-218514-9
문의: 사회사업팀, 650-3529

경산시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모집

분야: 기부은행 자원봉사자 모집
자격: 경산지역 활동 가능하신 분
문의: 경산시어르신복지센터, 854-1666

대구가톨릭요양원 입소어르신 모집

2018년 장기요양평가 최우수기관
위치: 달성군 논공읍

대상: 장기요양 1~5등급(시설급여)
문의: 615-2141 / 616-2141

전례꽃꽂이연구회 월례회

일시: 9.27(월) 11: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문의: (010)2780-4535

대구ME 383차 비대면 주말

383차: 10.29(금)~31(일)
장소: 부부 각 가정 / 문의: 983-0521
코로나 걱정없이 가정에서 하는 ME주말
코로나 어둠 속 사랑과
희망의 등불을 다시 한번

채용 | 안내

전인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

위·대장내시경검사에서 진료까지
당일진료 가능합니다.
검진센터: 670-5959(09:00~17:30)

칠곡가톨릭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에서
6대 암 검진 및 일반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문의: 320-2061
<http://www.tcmch.co.kr>

2021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적 증명서,
본당 신부님 추천서
접수: 교구 문화홍보국, 250-3048

바른동물의료센터
▶ 365일 24시간 진료
▶ 대학병원 석/박사 원장 진료
▶ 동물병원내 CT 장비 도입
▶ 주사 10대이상 완비
▶ 유튜브 '개알남' 채널 운영
특화진료
·정형외과
·심장내과
·강장질환
·고양이특화
·아간염급
대구광역시 유서구 강성동 380-5 (아미노 힐링점 맞은편)
대표원장 이세원(투구) 053-571-0075

Mumasis 휴마시스
코비드-19 홈 테스트
Humasis COVID-19 Home Test
집에서 간편하게,
결과는 15~20분!
L101 니오 MDT MEDTEC
하현태 미카엘
010.5542.6006
※ 본 검사는 PCR 검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비엔 비뇨의학과
24시간 요로결석
피부과
대표원장 전문의 이윤형 (요셉)
상정브리타시 건너편 올리브영 3F
Tel. 053 552 2525

경일신경과·내과의원
• 뇌졸중(중풍)·치매 조기진단
• 두통, 어지러움, 손발저림
• 영상의학 - MRI, CT, 초음파
대표전화 053) 652-2525
내당역 2번출구(홈플러스 내당점 맞은편)

이시아요양병원
대구시 동구 파계로6길 16(지묘동)
(파군재 삼거리 좌회전 100m)
(053)983-7700
병원장 이동구 (마티아)

서울에이스통증의학과
목, 허리, 어깨, 무릎 통증치료전문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 치료 전문
(최신 체외충격파 치료기 도입)
목 / 허리통증 / 오십견 / 무릎관절염 / 스포츠 손상
원장 권 임 치(안드레아)
진료과목: 통증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대구 아령로 46 [산림동 214-4] 2층 Tel 053-954-7582

파크골프
초급자, 중급자, 상급자, 선수용
입문자 친절상담
(주)매일프라자
김홍은(요셉) 010-9804-8008
유용단지 45 전차편 18 2390

빛 사랑 후원회원 모집
월간 <빛>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빛사랑) 후원회원을 모집합니다.
가입안내 및 특전
▶ 1인 1구좌 이상 가능, 1구좌당 매월 10,000원
▶ 후원회원을 위한 월 미사 봉헌,
연말 소득공제용 기부금 납입증명서 발급
▶ 문의 053)250-3158, 252-5392